

## 광주·전남 '겨울 대유행' 현실화...사실상 2.5단계 격상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을 오르 내리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광주·전남에서도 겨울철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2.5단계로 격상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면대면 방식의 방문판매, 종교시설 등 감염병 취약지대는 물론 보건시스템의 최후 보루인 대형병원까지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과 방역당국의 피로감이 커져만 가고 있다.

### ◇누적 확진 1500명 육박...광주, 10달 만에 최다

2월 초 지역 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2일 현재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912명, 전남은 516명으로 광주·전남 통틀어 1428명에 이른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내 1500명 돌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확진자 중 90%는 지역 내 감염 사례다.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 683명(47.8%)이 지역내 4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7일 이후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전남 북구 수곡동 에버그린요양원에서 환자 12명, 직원 4명 등 16명이 무더기 감염되면서 일일 확진자수가 22명으로, 지난 8월26일 39명(성립침례교회) 이후 10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2월부터 통틀어도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수다. 22일 신규 확진자까지 합하면 33명이다. 전남까지 합하면 닷새 연속 두 자릿수 확진이다.

### 요양병원·교회 등 감염 취약 '약한 고리' 잇따라 뚫려 외부 유입 경로 30여 건·신규 확진 절반은 무증상자 5인 이하 모임·면회 금지·종교활동 비대면 전환키로

최근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성일교회 등 교회 3곳과 광주 789번 관련 확진자까지 포함해 모두 36명은 경북 상주의 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 ◇감염 취약 '약한 고리' 줄줄이 뚫려

전남 화순의 요양병원과 광주 북구 요양원이 잇따라 집단 감염되면서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는 게 지배적인 반응이다. 고령의 저질환자들이 많고, 특정 장소에서 밀집생활을 하는 곳이어서 "한 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직원(전남 479번)이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환자 10명과 직원 4명 등 모두 14명이 감염돼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가 유지되고 있다. 광주 에버그린요양원도 이달 12일과 17일 두 차례 지인 간 접촉을 한 요양보호사를 매개로 16명이 집단 감염됐다.

광주지역 요양원 내 집단 감염은 지난 7월 확진자가 속출했던 아가페(8명)·한울요양원(12명)에 이어 3번째다.

대형 병원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전남대병원에 이어 이번엔 광주기독병원이 뚫렸다. 간호조무사(광주876번) 1명이 양

성관정을 받은 이후 전수검사를 통해 입원환자 3명과 동료의료진 1명, 환자 보호자 1명이 추가 감염됐다. 일부 병동은 코호트 격리됐고, 입원환자와 의료진·직원 등 70여 명이 자가격리됐다.

### ◇외부 경로 30여 개...무증상 50% '조용한 전파'

외부 유입도 큰 골칫거리다. 외부 유입 루트가 30여 개에 이르고, 이로 인한 감염자는 지난달 이후 광주에서만 76명에 이른다. 지역간 이동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으로 n차 감염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 480번 확진자의 경우 광주 모 교회 교인으로 관련 확진자만 11명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의왕에 사는 한 목사의 광주강연에 참석한 모 교회 교인들도 집단 감염을 피할 수 없었다.

경기도 골프모임 관련 광주지역 확진자도 n차 감염을 포함해 모두 16명에 달했다. 여수에서는 고3 수험생이 전북 군산 자택을 방문한 뒤 코로나에 감염돼 교내 전수조사 등 홍역을 치러야 했다. 동대문구 306번 관련 n차 감염자로 5명에 달했다.



22일 오전 광주 북구 모 요양시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으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감염 경로가 미국에 빠진 확진 사례만 광주에서 30여 명에 이르고,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량이 '무증상 환자'라는 점도 '조용한 전파'에 의한 n차 감염 우려를 높이고 있다.

### ◇ "전시와 같은 상황" 사실상 2.5단계로 상향

겨울철 들어 신규 확진자가 끊이지 않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2.5단계로 올렸다. 24일 0시부터 1월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우선 감염 아열대성인 요양시설(원)과 정신병원에서의 면회와 외부인 출입 통제, 종사자들의 타 시설 방문과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예배와 미사, 법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운영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5인 이상 예약이나 동반입장은 안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자체도 강력히 권고했다.

파티룸은 집합 금지고, 영화관과 공연장은 2.5단계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피우기를 통한 인원제한도 강화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은 금지된다. 해남이 관련 모든 행사도 모두 금지된다. 신봉우기자

## 기아차 노사, 11년만에 임금동결 잠정합의...29일 투표

### 성과급 150%·격려금 120만원 등...최대 쟁점 '25분 잔업' 합의안 마련

기아자동차 노사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11년만에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22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전남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진행된 제16차 교섭에서 밤샘교섭을 벌인 끝에 '2020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최준영 대표이사(부사장)와 최중태 노조 지

부장 등 기아차 노사는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밤샘교섭 끝에 22일 ▲기본급 동결 ▲성과급 150% ▲격려금 12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임단협 최대 쟁점이었던 '잔업 30분 복원'은 '25분 복원' 선에서 큰 틀의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오는 23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설명회를 하고 28일 부재자 투표, 29일 찬반투표를 한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기아차 노사는 협상 과정에서 잔업 복원과 정년 연장 등 쟁점에 대한 입장차로 난항을 겪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제14차 본교섭에서 사측과 '30분 잔업' 복원과 관련

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5~27일 사흘간 매일 주·야간 4시간씩 1차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노조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12월 들어 지난 1·2·4일 사흘간 2차 부분파업을 강행한데 이어 15차 교섭이 결렬되자 9~11일 3차 부분파업, 14~18일 4차 부분파업까지 이어갔다. 기아차는 노조의 잇따른 1~4차 부분파업으로 3만여대를 웃도는 생산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사는 잔업시간 복원은 생산능력 만회 등을 통한 임금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실업률과 생산성 향상, 작업시간 추가 확

보, 생산 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합의됐다. 또 기존의 베테랑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정년퇴직자가 퇴직 후에도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위기극복 및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교섭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 상호간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